

## 사회주의 생활양식의 내면화와 문화적 관습\* ‘미신문화’의 변화와 확산 과정을 중심으로

권혁희\*\*

최근 북한에서 장마당 체제 이후 주민들 사이에 미신문화가 만연해 있다는 이야기를 언론이나 탈북자들의 구술을 통해 쉽게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신의 확산은 장마당 체제 이후 등장한 사회 현상이라기보다는 그 이전부터 은밀하게 전승된 생활문화로서 설명할 수 있다. 곧 사회주의 생활양식이라는 강력한 규범이 미신문화와 같은 과거의 문화적 관습을 이데올로기적 질서 안으로 소멸시키도록 시도했지만 일상의 영역에서 은폐된 형식과 다양한 문화적 변형을 통해 연속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80년대 후반 전통 명절의 부활과 함께 조상숭배 문화가 확산되면서 과거 세대에서 전승된 생활문화가 장마당 체제와 함께 활성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장마당의 성장과 함께 시장화 현상에 직면한 북한 주민들이 그들의 기복적 요구들과 내면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자연스러운 문화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문화적 관습, 사회주의 생활양식, 장마당 체제, 아래로부터의 시장화, 미신문화, 조상의례

\* 이 논문은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NRF-2017S1A5B4055916). 유익하고 중요한 지적을 해 준 세 분의 심사위원에게 감사를 드린다.

\*\* 서울시립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사.

## 1. 서론

최근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점술과 주술, 사주 등의 민간신앙이 크게 확산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언론 혹은 탈북자들의 구술을 통해 쉽게 들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장마당 체제 이후 주민들이 각자도생으로 생존해 나가는 현실 속에서 불안한 미래에 대응해 가는 기제로서 기복신앙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심지어 탈북자들이 ‘탈북 할 때도 점을 치거나 고위 간부들은 단골 점쟁이를 두고 있다’<sup>1)</sup>고 말할 정도로 북한 사회에서 민간신앙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소위 ‘미신문화’의 확산은 장마당이라고 하는 시장질서가 중요하게 작동되고 있는 현상과 맞물려 있어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 당국에서는 만연화된 미신문화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미신을 자본주의 ‘황색바람’으로 규정하고 이를 어긴 주민들을 처벌하기 시작하고 있어 향후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본고는 북한 주민들에게서 실천되고 있는 미신이라는 것이 단순히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그들의 오래된 생활문화에서 지속된 것으로 현대 북한사회의 변화 속에서 어떠한 문화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동시에 북한의 지배체제와 인민들의 일상생활이 어떻게 균열되고 있는지를 미신이라는 전근대사회의 비합리적 관습문화와 연결시켜 설명하고자 한다.<sup>2)</sup> 특히 본고에서 핵심인 ‘문화적 관습’

---

1) 홍국기, “북한서 미신 만연… 돈 조각상, 신수풀이 사진 나돌아,” 『연합뉴스』, 2016년 10월 30일.

2) 최근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로는 동국대학교 분단/탈분단연구센터, 『분단의 행위자: 네트워크와 수행성』(서울: 한울, 2015), 홍민·박순성, 『북한의 권력과 일상생활』(서울: 한울, 2013)을 들 수 있다.

은 북한의 정치체제와 주민들의 관습적인 정치문화와 연결시키는 김성경의 연구와 연관된다. 이 연구는 북한의 정치체제가 주민들의 사고와 행위를 규범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내면화시켜 왔음을 강조하고 있다. 곧 ‘마음의 습속’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주체사상이 주민들의 권력에 대한 의지와 복종에 있어 오랫동안 내면화된 체계로 작동되어 왔다는 점이다.<sup>3)</sup>

그러나 그러한 일종의 ‘습속’이라는 사회적 구조화와 개인과 집단의 사회·문화적 실천은 지속과 변화의 동학 속에서 전개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는 북한 정권이 주체사상을 전후로 강력하게 관철시켜 온 지배와 복종의 문화보다는 그 이전부터 형성되어 온 문화적 관습이 사회주의화 이후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화와 주체사상의 강력한 내면화 과정이 그 이전 세대부터 전승되어 온 문화적 관습과 어떻게 공존되어 왔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최근 시장질서의 유입과 불안이 미신을 활성화시켰다는 측면과 함께 왜 그러한 사회적 불안이 무속과 점복, 조상의례와 같은 형식으로 확산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문화의 전승과 변형의 세부들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문화적 변형은 주체사상에서 조선민족제일주의로 연결되는 이데올로기적 추동 그리고 고난의 행군으로 이어지는 북한사회의 특수한 변곡점과 상호작용되어 왔을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북한 주민의 일상과 밀착되어 개인과 가족, 사회집단에 통용되는 많은 사회주의 생활양식들이 완벽하고 빈틈없이 통제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다. 본 연구의 주제인 미신 역시

---

3) 김성경, “북한 정치체제와 마음의 습속,” 『현대북한연구』, 21권 2호(2018), 223~224쪽.

사회주의 생활양식의 적용 이전부터 전승된 문화로서 민간신앙과 관혼상제의 풍속, 일생의례와 조상의례가 관련된 매우 큰 범위를 통해서 시간적으로 축적된 문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에서 미신은 봉건잔재로서 비과학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면서도 과거로부터 전승되어 온 자연스러운 생활문화라는 측면이 불분명하게 혼재되어 있다. 강력한 사회주의 생활양식의 적용과 세밀한 일상생활의 통제를 포함하는 억압적 기제들이 북한 주민들의 사상과 감정, 사회적 행위와 개인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세대 간 전승되었던 방식의 기복신앙적 대응들은 민간에서 보이지 않게 지속되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주의국가였던 중앙아시아 지역의 종교지형 변화는 장마당 체제가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북한사회를 들여다보는 데 유용한 참고가 되고 있다. 가령, 부랴트(Buryat) 울란우데(Ulan-Ude)의 샤머니즘을 연구한 캐럴라인 험프리(Caroline Humphrey)는 구소련 해체 이후 억압되었던 샤먼들이 도시를 중심으로 문화적 경관을 생성해 나가는 과정을 밝히고 있다. 1930년대 이후 소비에트 시대를 거치면서 샤먼들은 억압당하고 감옥과 수용소로 보내졌지만 시골에서 은밀하게 활동은 계속되었다.<sup>4)</sup> 그 후 도시에서 성공적으로 생존해 나가는 샤머니즘의 존재는 사회주의 ‘해체’와 초기 자본주의의 체제의 불안한 일상을 보여 준다.<sup>5)</sup> 마찬가지로 신생 독립국가인 시베

---

4) Caroline Humphrey, “Shamans in the City,” *Anthropology Today*, Vol.15, No.3(1999), p.3.

5) Manduhai Buyandelgeriyin, “Dealing with Uncertainty: Shamans, Marginal Capitalism, and the Remaking of History in Postsocialist Mongolia,” *American Ethnologist*, Vol.34, No.1(2007), pp.127~128.

리아 지역의 사하공화국 역시 사회주의 시기 개종과 억압의 시기를 거쳐 왔으나<sup>6)</sup> 1992년 독립 이후 샤머니즘 단체와 샤먼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샤머니즘은 그들의 전통종교로서 사하인들의 민족적 정체성 형성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sup>7)</sup>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 사회의 미신문화가 다양한 지배이데올로기의 전략들 틈새에서 어떻게 북한 주민들의 생활세계 속에서 변형되어 실천해 나갔는지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곧 가장 높은 수준의 공포정치로 표상되는 북한사회에서 주민들에게 미신이 어느 수준에서 허용되어 왔으며 혹은 제한되어 왔는지 최근 장마당 체제 시기를 중심으로 문헌과 구술로 살펴보고, 그러한 억압과 허용의 틈새를 통해 사회주의 생활양식과 기존 문화적 관습의 변형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sup>8)</sup> 특히, 이러한 미신문화가 장마당 경제체제와의 연관성뿐만 아니라 북한 사회에 전반화된 조상의례나 관혼상제 그리고 전통적 세시(歲時)에 이르는 반복적인 생활문화와 어떠한 경계를 이루고 실천되고 있는지를 같이 검토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의해 봉건 잔재로서 미신으로 치부되는 기복신앙적 실천들과 사회주의화 이전부터 전승된 민간의 문화적 관습이 현대 북한사회에서 어떠한 문화적

---

6) Marjorie Mandelstam Balzer and Uliana Alekseevna Vinokurova, "Nationalism, Interethnic Relations and Federalism: The Case of the Sakha Republic(Yakutia)," *Europe-Asia Studies*, Vol.48, No.1(1996), p.104.

7) 강정원, "사하인의 민족정체성과 러시아 민족정책," 김광익 외, 『종족과 민족』(서울: 아카넷, 2005), 204-205쪽.

8) 본 연구에서 참고한 문헌자료는 『조선녀성』, 『천리마』를 비롯해 북한 사회과학 연구원에서 나온 전통명절이나 관혼상제 등을 설명하는 단행본을 주로 참고했으며, 구술자료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에서 토대사업으로 진행 중인 "북한 생활문화 역사 DB구축" 연구과제 수행 중 임시로 제작된 자료집(미발간)에서 총 5명의 인터뷰 내용을 참고하였다.

합의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1950년대 이후 ‘미신’의 사회사와 1990년대 이후 일상화 과정

### 1) 미신의 은밀한 지속 혹은 문화적 변형

6·25 이후 북한은 군사, 정치를 비롯해 경제부문에서 사회주의체제에 맞는 형식으로 일사분란하게 바꾸어 나갔다. 집단농장체제나 배급제뿐만 아니라 의식주에 이르는 일상생활 전반과 나아가 종교와 문화의 영역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영역까지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 갔다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기존 종교질서의 해체와 비과학적인 민간신앙과 문화적 관습의 해체 역시 사회주의 생활양식의 변형의 요구를 강력하게 받아왔다고 할 수 있다. 가령, 해방 직후부터 미신타파운동이 강력하게 추진되었으며 1950년대 후반 농업협동화 과정을 거치면서 마을제사 관행의 소멸과 여맹을 중심으로 하는 미신박멸운동이 강력하게 추진되었다.<sup>9)</sup> 그러나 사회주의 이전 일제시기를 비롯해 그 전 세대들에 의해 전승된 문화가 쉽게 일소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설은 최근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북한 주민에 대한 구술조사를 반영한 임순연의 연구에 의하면 지배체제의 미신의 제거가 완벽하게 성공하지 못하고 은밀하게 주민들에게서 전승되어 왔음을 보여 준다.<sup>10)</sup> 특히 제거대상이었던 봉건적 유습이나

---

9) 박소영, “북한의 지방문화의 획일화와 지방공동체의 해체,” 『북한학연구』, 6권 2호(2010), 138~140쪽.

미신으로 치부하는 문화적 관습들은 이미 주민들의 생활세계에서 전승되고 있어 쉽게 일소해 버리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미신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믿음이나 사고체계, 관습 등을 총칭한다고 할 수 있는데,<sup>11)</sup> 북한 주민들에게 주로 언급되는 요소들은 민간신앙이나 무속이 대표적이며 그 외에도 뗏자리를 보는 풍수나 조상의례, 관혼상제 시 행하는 절차나 의식, 기타 일생의례를 포함하는 과거의 문화적 관습을 포괄하고 있어 상당히 넓은 개념이기도 하다. 바로 이 미신으로 치부되는 사회주의화 이전의 문화적 관습은 종교와 결부되어 사회주의 건설에 해악이 되는 요소로 자주 천명되어 왔던 분야였다. 1950년대 후반 문헌을 살펴보면 신년운수, 점복, 사주 보기, 궁합이나 묘 이장, 풍수, 손금 보기, 무당의 굿과 맹인독경 등의 모든 미신의 종류를 타파할 것을 계몽하고 있다.<sup>12)</sup> 따라서 물리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대상은 이 시기 거의 일소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테면, 공식 종교 관련 시설이나 경전을 비롯해 민간신앙과 관련된 마을의 제당이나 성황당, 무속인의 무복이나 무구 혹은 관련 서적 등이 대표적일 것이다. 그러나 물리적 파괴의 대상이 아닌 사람들 사이의 미신 관행은 정치적 억압의 정도가 공식 종교에 비해 매우 약했을 가능성이 크다.

분명한 것은 서구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종교로서 기독교가 가장 큰 억압을 받았으며, 불교와 천주교 역시 거의 기반을 상실했던 반면 미

---

10) 임순연, “1990년 이후 북한 사회의 민간신앙 연구”(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11) 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 『현대조선말사전』(서울: 도서출판 백의, 1988), 1039쪽.

12) 1950년대 미신타파 관련 자료는 “낡은 유습을 버리자,” 『조선녀성』, 1957년 4월호, 24쪽; “팔자는 타고난 것인가,” 『조선녀성』, 1957년 6월호, 36~37쪽; “미신은 왜 믿게 되는가,” 『조선녀성』, 1957년 7월호, 36~37쪽 참고.

신은 강력한 계몽의 대상이었지 반국가적 사상이나 형법의 처벌대상은 아니었다.<sup>13)</sup> 또한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 등의 종교는 외부 세계와의 연대 가능성이나 반국가성, 반체제성을 가질 수 있었던 종교였던 것과 비교해 미신을 포함하는 문화적 관습은 사회주의 문화에 대한 적대행위까지로 보지 않았으며, 오히려 사회주의 정치체제에 대한 불만이나 두려움을 분산시킬 수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1967년부터 1970년에 실시된 ‘주민재등록사업’에서 기독교인 등의 종교인들은 감시의 대상인 적대계층(복잡한 군중)인 것에 비하여 미신승매자와 유학자는 동요계층(기본군중)으로 차이를 두고 있다.<sup>14)</sup> 북한에서 미신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2003년에 이르러 만들어졌던 것도 체제위협과 거리가 멀었기 때문일 것이다.<sup>15)</sup>

그런 점에서 공식 종교의 부재는 미신이 인간의 보편적인 기복행위의 수단으로 은밀하게 이어져 오게 된 환경을 제공했다고도 볼 수 있다. 북한에서 공식 종교는 일반 주민들과 거의 관련이 없으며, 비록 교회와 사찰 등의 종교시설과 종교 관련 단체들이 있지만 체제수호로 수렴되는 교리로 운영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북한 정권은 대외적으로 인도주의 차원에서 국제교류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13) 북한 헌법 제68조에 의하면,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http://www.unilaw.go.kr/bbs/selectBoardArticle.do>).

14) 임순연, “1990년 이후 북한 사회의 민간신앙 연구,” 14쪽.

15) 북한 형법 제256조 (미신행위죄)에 의하면, “돈 또는 물건을 받고 미신행위를 한자는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여러 명에게 미신행위를 배워주었거나 미신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http://www.unilaw.go.kr/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21&bbsSubId=008](http://www.unilaw.go.kr/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21&bbsSubId=008)).

종교가 인간의 삶에서 직면하는 내면의 문제들과 상호작용 하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오히려 사적인 종교생활의 결과가 파멸적인 처벌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반국가적인 행위로 교육되고 있는 현실에서 믿음 체계로서 신앙의 존재는 거의 부정되고 있다. 이러한 강력한 종교의 부정은 1950년대 후반 이후 공식 종교의 기반을 거의 무력화시켰으며, 실제로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탈북자들의 구술에서도 목사나 신부와 같은 성직자들의 명칭은 들어 본 적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오히려 점을 친다거나 푸닥거리를 하는 것, 혹은 굿을 하는 등 민간신앙이나 미신은 간혹 볼 수 있었다고 한다.<sup>16)</sup> 이런 점에서, 민간신앙은 종교의 제거 과정에서 물리적이고 외형적인 측면에서 쇠퇴해 갔지만 은밀하게 전승되는 방식으로 사회 속에서 잔존되어 변형되어 갔던 것으로 이해된다. 가령, 탈북자들이 말하는 ‘알음알음으로’ 찾아간다거나 동네 할머니가 신기가 있어 몰래몰래 봐 주게 되었던 사례를 비롯해, 탈북자 무속인으로 활동하는 여성 역시 할머니로부터 몰래 배웠다고<sup>17)</sup> 언급하고 있어 억압 속에서 은밀하게 전승해 왔음을 보여 준다.

특히, 민간신앙으로서 무속은 과거부터 매우 강한 통제를 받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형식과 내용으로 변형되어 오늘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가령, 무속인의 굿은 매우 절제되거나 거의 퇴화되고 음성화된 방식으로 변형되어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악기를 사용하지 않고 무복이나 무구 사용 없이 점사와 주술, 간단한 방식의 굿이나 치성 등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무속인을 일컫는 용어 역시 무당을 회피하고 ‘점쟁이나 관상가, 미신쟁이’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16) 류성민, 『북한 주민의 종교생활』(서울: 공보처, 1994), 36~37쪽.

17) CBS, “새롭게 하소서: 나는 북한 무당이였다” 프로그램 참고.

신당 자체도 차릴 수 없어 집에서 몰래 점을 보는 방법만이 존재하고 있어 남한 사회처럼 드러내 놓고 영업하는 행위는 있을 수가 없다.<sup>18)</sup> 그리고 이러한 은밀한 미신문화는 고난의 행군과 장마당 체제라는 사회 격변기를 경험하며 좀 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가까운 곳으로 나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과 같은 탈북자의 구술에 의하면 1990년대 이후 고난의 행군이 미신문화의 확산에 큰 영향을 끼쳤음을 보여 준다.

제가 볼 땐 북한 주민들의 의식화가 있었던 계기점이라는 부분이 90년대 아사사건이라고 보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하도 힘들게 하고 그런 시련을 겪다 보니까, 미신을 상당히 많이 믿게 됐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횡행한 것이, 퍼진 것이 뭐냐면, 화투나 트럼프로 점을 치는 것이 상당히 일반화됐어요. 그리고 첫 꿈, 우리말로 하면 해몽이라고 하죠. (중략) 꿈 해몽 같은 것들을 상당히 신경 쓰기 시작했거든요. 옛날엔 안 그랬는데, 90년대 이후부터는...(황해남도 출신 A 씨, 1964년생, 여).

고난의 행군 되면서 다 산으로 가더라고요. 북한에는 미신 문화가 많아 가지고. 하여간 산에 가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온다고. 그래서 산으로 어렸을 때 더 많이 가더라고요. 나도 보니까 우리는 빼해마다 계속 꼭꼭 가기는 했는데, 고난의 행군 들어가서 보니까 산에 죽은 사람이, 묻은 사람이 더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옛날에는 없었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으냐고 말하면서 올라갔던 기억이 있어요(함경남도 출신 B 씨, 1969년생, 여).

위와 같이, 고난의 행군 이후 점을 보거나 꿈 해몽과 같은 점사 외에도 성묘를 하는 조상의례 역시 훨씬 활성화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

18) 유튜브, “천기누설, 북한의 무속신앙 백화신당” 참고.

이는 1967년 이래 조상의례를 공식적으로 허용하지 않다가 1972년 남북교류 이후부터 점차 성묘가 허용되고 추석과 설이 전통명절로 지정되는 1986년을 거치게 되는 과정과 연동되고 있다. 곧 봉건잔재로 제한되었던 조상의례가 점차 북한 주민 전 세대에 의해 확산되면서 조상 묘의 위치를 정하거나 옹기는 일, 조상의 묘에서 기도하는 행위들 역시 일반화되어 갔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러한 조상의례 역시 기복적 의미를 띤 형태로 활성화되었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으며, 이와 연관된 점복과 점술, 관상 등의 소위 미신문화가 전방위적으로 주민들에게 확산되었을 것이다.

## 2) 고난의 행군 이후 미신의 일상화

앞서 강조한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확산된 미신문화는 최근 몇몇 설문조사나 면담조사에서 빈번하게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고난의 행군 시기를 전후로 얼마나 증가했는지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단순히 1950~1960년대 이후 극도로 억압되어 있다가 사회통제가 느슨한 시기에 확산되었다고 추측하고 있다. 실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기 전 1990년경 무렵 탈북자 구술에서도 미신 활동을 한 가족의 추방<sup>19)</sup> 그리고 점쟁이와 운수, 사주, 택일 보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신문기사가 등장하고 있듯이<sup>20)</sup> 민간 전승된 기복신앙적 문화적 관습은 억압적 환경 속에서 매우 은폐되어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과 같은 구술 역시 사회주의 생활양식의 통제가 미신의 만

19) 북한인권정보센터, 『2017 북한 종교자유 백서』(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2017), 233쪽.

20) “관상, 손금 등 미신 급속 확산,” 『경향신문』, 1991년 7월 15일.

연을 억압하고 있었다면, 아래로부터의 시장화를 비참하게 겪고 인내해 온 북한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미신문화를 소비해 갔을 것으로 보인다.

90년도 이후에 그런 풍습, 미신이 생긴 것이 아니고 폭발한 것이죠. 이전에도 있긴 있었어요. 혹시 관상 보는 사람. 그건 아주 드물게 볼 필요도 없었어요. 나가면 그냥 배급 주고 돈 주는 데 뭐 볼 일이 있어요. 90년대 이후부터는 다 자기가 움직여야 되고 모든 것이 다 비법이니까 비법과 내 시장 활동 사이에 이런 촉매제가 미신인 거죠. 이것을 어떻게 보면 미신 장인들이 하는 말은 우리 조상들이 말하는 풍습이다. …(평안남도 출신 C 씨, 1962년생, 남)

탈북자 구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난의 행군이라는 사회변화가 미신을 폭발시킨 촉매제가 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제 이와 관련된 조사에서 탈북자가 북한사회에서 무속신앙에 노출 빈도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61%가 ‘수시로 봤다’고 응답했을 만큼 상당히 확산된 것으로 나타난다.<sup>21)</sup>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큰 차이가 없으며 상하 계층적 차이도 구분 없이 미신문화가 만연된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당 간부나 군관, 교원과 같은 북한의 인텔리 층에서 확산이 더 빨랐다고 추정하는 경우도 있다.<sup>22)</sup> 또한 무속인 혹은 점쟁이 수에 관한 정보 역시 정확한 통계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평양에 무당과 역술인 등의 점쟁이가 300여 명 존재한다거나 인구 10만 이하 군 단위에는 20~30

---

21) 직업별로도 공직자군에서 노동자와 농장원에 비해 높은 수치가 나타나고 있어 비교적 상층계층에서 무속신앙에 대한 의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차성근, “북한 체제변동 가능성과 북한 주민 의식구조 분석”(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181~183쪽.

22) “北부유층, 조상묘 찾아 555원 파문어,” 『데일리 NK』, 2008년 9월 12일.

명 정도라고 추정하기도 한다.<sup>23)</sup> 2005년 미국국제종교자유위원회(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에서 탈북자를 인터뷰한 조사에 의하면 ‘2km마다 점쟁이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그 수가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sup>24)</sup> 물론 남한과 비교하면 무속인의 수는 매우 적은 편이지만, 탈북자들의 구술에서 신기가 있는 용한 사람을 먼 길까지 찾아가는 사례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 북한에서도 능력 있는 무속인들의 선호가 큰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무속인들의 활동은 일반적인 점술과 운세 보기를 넘어 ‘병에 대한 치료와 가족에 대한 죽음의 원인에 대한 처방’,<sup>25)</sup> ‘귀신 쫓는 액땀 제사’ 등 유사의료 행위까지 이르고 있다.<sup>26)</sup> 고난의 행군 시기 공공의료의 붕괴 현상이 민간의료나 민간신앙의 역할을 부각시키는 데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 곧 이러한 위기의 경험과 이후 찾아온 시장질서 속에서 생존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사업운이나 장사를 하는 데 있어 점을 보는 행위는 자연스러운 변화였을 것이다. 특히 사업대상자에 대한 궁합을 보는 사례가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 가령, 사업 파트너의 띠별 궁합을 수첩에 기록해 놓고 ‘띠궁합, 날짜궁합, 지형궁합’을 통해 장사할 대상을 선택한다고 한다.<sup>27)</sup> 나아가 일상

23) 이은영, “탈북 예술인이 들려주는 북한의 점 보기 실태,” 『신동아』, 570호(2007), 282쪽.

24) 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THANK YOU FATHER KIM IL SUNG: EYEWITNESS ACCOUNTS OF SEVERE VIOLATIONS OF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IN NORTH KOREA*, 2005, p.39

25) 임순연, “1990년 이후 북한 사회의 민간신앙 연구,” 35~36쪽.

26) “北, 점보는 사람 늘고 있다,” 『데일리 NK』, 2005년 4월 17일.

27) “北돈주, 동업자 띠·나이 파악해 ‘장사궁합’ 본다는데,” 『데일리 NK』, 2015년 6월 19일.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관혼상제나 여러 가정의례에서도 결혼식 날이나 회갑 날짜 등의 택일, 출산 후 아이 이름 작명까지<sup>28)</sup> 그 범위가 일상생활 전반으로 확산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공식 종교의 부재 속에서 민간에서 전승된 민간신앙과 일상례를 비롯한 조상의례 등의 문화적 관습은 어둠 속에서 침체되어 있다가 장마당 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자리를 틀었던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비공식적인 시장 질서의 불안 속에서 기복신앙의 문화적 체계가 점차 그 기능을 찾아갔던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러한 문화적 대응의 중심에는 미신생활의 가장 중요한 행위자인 무속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속인은 주민의 일상 속에서 점복, 치병, 입관, 뫼자리, 직업, 진로와 승진문제, 남을 망가지게 하는 방법, 상갓집에서 생긴 문제 등을 해결하는 등<sup>29)</sup> 생활 전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존재였다. 그들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직업으로 변모시켜갈 정도로 적극적인 행위성을 가진 개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시장화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미신문화의 실천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

28) “생계난에 불안감 확산... 점(占)보는 北주민 늘었다,” 『데일리 NK』, 2018년 3월 26일.

29) 최준, “북녘의 무당들 - 어느 탈북 무녀의 이야기,” 『한국문화연구』, 21호(2011), 187~188쪽.

### 3. 아래로부터의 시장화와 ‘미신문화’의 실천

#### 1) 조상의례와 관혼상제의 문화적 관습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신 중 점복과 굿 등을 포함하는 무속적 행위는 처벌이 따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게 안전한 방식의 대응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2003년 이래 처벌 법규가 만들어진 이후 범망을 피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무속인과 상습적인 미신행위는 분명 신체형이나 노동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북한 주민들은 당국에 의해 허례의식이나 미신으로 비판받고 있지만 전통명절로 지정된 설과 청명(한식), 추석을 이용한 조상의례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간혹 조상의례는 유교와 관련시켜 미신이 아니라는 언술도 다수이지만 탈북자들 사이에서 제사 역시 미신으로 설명되기도 하며, 북한의 공식적인 방송매체에서도 추석의 조상숭배를 ‘미신적인 행사’로 언급하고 있고,<sup>30)</sup> 음식을 과도하게 차리고 차례를 지내는 형식 자체를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어긋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 북한 당국에서는 묘 앞에서 꽃을 바치고 간단히 묵념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는 것에 반해,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조상묘 앞에 음식과 술을 많이 차려 놓고 절을 하는 조상의례를 지내오고 있다.

북한 체제에서 조상의례가 위축된 시기도 있었지만, 1980년대 후반 이래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된 이래 묘를 돌보거나 성묘하는 일이 일반화되면서 조상의례는 자연스러운 전통문화로 수용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 사회 내에서 매장이 일반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

30) 통일부(북한정보포털), 『주간북한동향』, 348호(1997년 9월 16일), 조선중앙방송 9월 16일 추석 소개 참고.

추석의 성묘는 가족과 친척이 모일 수 있는 계기이자 음식과 술을 편안히 즐길 수 있는 가장 명절다운 것으로 경험되기 때문일 것이다. 동시에, 조상의례는 민간신앙과 연결되어 더욱 활성화되는 현상을 연출하고 있다. 북한의 무속인 혹은 점쟁이들은 나쁜 운세에 대한 해결로 조상의 문제를 거론한다고 한다. 즉, 조상묘의 이장과 조상에 대한 다양한 의례는 기복신앙과 모두 연결되고 있다. 가령, ‘조상 묘를 찾아 점쟁이들이 알려 준 대로 묘지 주변에 돈을 파묻거나, 붉은 천을 대위 특정 방향으로 재를 날리는 행위’를 한 사례를 볼 수 있듯이<sup>31)</sup> 설과 추석, 한식, 간혹 단오 때 하는 조상의례는 기복행위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북한 당국에서는 과도한 조상의례를 반사회주의적 생활양식으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결혼과 명절 등에 많은 음식을 소비하거나 허례허식의 각종 의식을 치르는 것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북한의 대표적 여성잡지 『조선녀성』에는 미신을 많이 접하고 전파하는 여성들에 대한 계몽이 자주 실리는데 2005년 7월호에 의하면, “약혼을 크게 하는 것,례장을 교환하는 것, 신랑신부에게 큰상을 따로 차려 주는 것, 여러 가지 명목으로 제사를 자주 하는 것, 까다롭고 복잡한 제사 절차 등은 의의가 없는 허례허식이다”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궁합을 보는 것, 신랑·신부가 흰 장갑을 끼는 것, 사람이 사망했을 때 미신행위를 하는 것, 밖에서 사망한 사람을 집에 들여오지 않는 것, 제사 때 미신행위 하는 것’ 등을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sup>32)</sup> 2012년 9월호에도 ‘관혼상제를 간소하게 해서 사회

31) 『데일리 NK』, 2008년 9월 12일.

32) “관혼상제에서 허례허식을 없애라,” 『조선녀성』, 2005년 7월호, 49쪽.

주의적 생활양식을 철저히 세우자'고 주장하는데, 관혼상제를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에 맞게 간소하게 하는 것이 '정치적 문제'이며 혼례와 제사의 복잡한 절차 등을 뒤떨어진 풍습이자 허례허식으로 비판하고 있다.<sup>33)</sup> 물론 이러한 허례허식에 대한 비판은 봉건잔재를 타파하기 위한 '정치의 문제'인 동시에 '경제적 문제'임을 보여 주기도 한다. 미신문화와 관혼상제 문화에 대한 비판에 항상 식량 낭비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지금 일부 사람들 속에서는 아직도 관혼상제를 크게 하면서 술한 사람들을 청해 놓고 보내, 여름내 애써 가꿔 거둔 낱알을 수없이 낭비하고 있으며 술풍을 조장시키면서 먹자판을 벌리고 있다. (중략) 관혼상제에서 미신적이며 이색적인 풍습을 철저히 없애야 한다. 지금 일부 사람들 속에서는 손없는 낱을 골라가며 대사를 치르는 미신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중략) 우리는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관혼상제를 철저히 우리 식으로 간소하게 함으로써 온 사회에 선군 생활문화가 활짝 꽃피나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해야 한다.<sup>34)</sup>

여기서 비판하는 주된 내용은 관혼상제의 허례허식과 미신 행위이다. 두 가지는 서로 다르게 표현되었지만 병렬적으로 취급되어 과거로부터 내려온 문화적 관습이 사회주의 생활양식과 맞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행위는 '넓은 사회의 생활관습'으로 '철저히 극복하고 고유한 민족적 풍습을 살리면서도 간소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령, 제사를 간단히 하는 방식으로 청명날이나 추석날에 산소에 꽃을 놓는 정도로 제안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33) 정혜순, "관혼상제를 간소하게 하자," 『조선녀성』, 2012년 9월호, 53쪽.

34)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관혼상제를 간소하게 하자," 『조선녀성』, 2007년 4월호, 54쪽.

묘 앞에 음식을 많이 차려서 같이 먹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과 함께 전체적인 소비문화의 검소화를 계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군시대의 생활문화로서 관혼상제가 중요한 사상의 일상적 실천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러한 명절을 건전하게 보내기 위한 사회주의 생활양식이 일반 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잘 지켜진다고 보기는 오히려 명절이 미신문화를 실천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다음과 같이 설에 새해 운수를 보거나 정월대보름날 액운을 막기 위해 하는 주술을 하는 행위를 통해 전통명절은 미신행위가 활성화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새해에는) 미리 신수를 보아야 하니까 12월 25일부터는, 저는 딱 30일 날 봤는데. 왜냐면 1월 10일까지 기본 전성기거든요, 이 점치는 거는. 12월 말부터 그것을 보고 다 적었어요. 신수를 다 적고 여기 어떻게 해야 되나, 액풀이하라. 액풀이는 기본 대보름에 하잖아요. 액막이하는 날은 일 년 방통하는 날은. 대보름날에. 대보름날이 상당히 귀하죠, 최근에. 일 년 운명의 액운을 막을 수 있는 날이 대보름날이에요. 설날에는 그것을 예견하는 날 이라면, 대보름은 방통하는 날이죠(평안남도 출신 C 씨, 1962년생, 남).

이와 같이, 북한사회에서 미신문화로 설명되는 일련의 무속과 점복 행위들, 그리고 전통적 관혼상제와 조상의례, 세시풍속에 이르는 생활 문화가 서로 상호작용되어 미신과 비미신으로 구분되지 않는 형식과 내용으로 얽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소 타파해야 하거나 개선해야 할 봉건잔재로 설명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실천과정에는 매우 복합적인 의미들이 얽혀 있기도 하다. 가령, 명당을 찾아 후손의 안녕을 비는 사례 중에 김정숙의 묘를 평양 최고의 명당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다. 이곳에서 소원을 비는 북한 고위층 부인들이 많으며, 여기서 기도

하는 것이 충성심을 보여 줄 수도 있는 중의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은<sup>35)</sup> 이러한 행위들이 복합적인 실천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전통명절과 고유한 민족적 풍습을 강조하는 것은 조선민족제일주의와 깊은 연관을 보여 주고 있어 허례허식과 봉건잔재의 풍속들이 정책적으로 진흥해야 할 사업과 혼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 사회주의 생활양식과 ‘미신문화’의 공존 그리고 불화

주지하다시피, 북한체제가 초창기 사회주의 국가 건설 시기부터 현재까지 일관성 있게 미신타파를 내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강한 통제와 처벌이 있어 왔었던 것은 미신문화가 이들 사회에서 불안하게 동거해 왔음을 보여 준다. 물론 이러한 문화적 관습에 대한 억압과 통제 그리고 이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대응은 계층과 지역별로 그리고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상이했을 것이다. 보통 평양의 당 간부와 같이 지위가 있는 계층이 미신을 믿는 일이 발각되는 것은 매우 치명적인 것으로 이야기 된다. 한편, 함경북도 산간 오지의 하층민들에게는 점을 보거나 아플 때 무당이 간단히 병을 낫게 해 주는 의식을 하는 등 전반적으로 민간신앙의 전승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미신이라는 단어의 용례 역시 비교적 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드러내 놓고 하기에는 금기이지만 집안에서는 다들 이야기하거나 이웃끼리 은밀하게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처벌규정이 있는 무속인의 점사나 굿 외에도 거의 처벌받지 않는 조상신에게 빌거나 풍수를

---

35) “북 고위층 부인들이 물러가는 평양 최고의 명당은?” 『엔케이 조선』, 2013년 10월 28일.

보는 등의 행위도 미신으로 표현되기도 하며, 조상 무덤을 옮기거나 제사를 과하게 하는 것 또한 미신의 개념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 미신의 범위와 맥락은 유동적일 뿐만 아니라 남한에 비해 비교적 부정적이지 않다.

당 간부한테 “내일 한식인데 좀 갔다 와야 하겠다” 하면 당 간부가 “그럼 출근했다가 가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한식만은 아무래도 조상님께 가는 거니까, 의식이 바뀌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하면, ‘재는 가는데 나는 왜 일해야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90년대 지나서부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요. 그 전날에 “내일 한식 갈 사람?” 이렇게 직장에서 손을 들고요. 그러면 거의 다 들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 한식날 아예 휴식을 쥘 버려요(황해남도 출신 A 씨, 1964년생, 여).

이와 같이 전통문화의 관습과 그것의 실천은 공식과 비공식의 경계에서 허용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 과거 한식이 공식적인 휴일이 되기 이전에도 한식날 성묘는 부분적으로 허용된 것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체제에서 미신문화에 대한 평가와 해석은 자본주의 황색문화로 설명되는 강한 억압 속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실질적인 처벌이 종교행위에 비해 가볍고 법의 적용이 느슨할 뿐이지 여전히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불화를 일으키는 요소일 것이다. 북한 당국이 미신의 확산을 적대적인 자본주의 문화로 규정하고 비사회주의 그루빠 색출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 또한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실제로 점사나 굿을 했는데 효험이 없어 신고가 되어 무속인이 5개월 노동단련형을 받았던 사례가 있으며,<sup>36)</sup> 북한 당국의 단속 외에도 TV 만담식의 미신 계몽 프로그램에서도 ‘손있는날’이나 손금 보는 문화, 궁합 보기, 띠로

---

36) 『데일리 NK』, 2005년 4월 17일.

사람과의 관계를 따지기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등장하기도 한다.<sup>37)</sup>

특히, 사상과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정교하게 만들어지는 미신에 대한 배격은 정치적인 뿐만 아니라 철학과 역사를 비롯한 학문적 생산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신을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 책동으로 간주하고 사회주의 사상의 진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 해독성에 관한 논리들이 지속적으로 생산된다. 가령, 철학 관련 학술잡지에서도 중국의 법륜궁이나 일본의 움진리교를 사례로 들며 “미신과 같은 반동적인 세계관을 완전히 극복청산하기 위하여서는 사상교양과 함께 사상투쟁을 강하게 벌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미신과의 투쟁에서 “제국주의사상문화와 미신침투책동에 경각성을 가지고 사소한 미신행위도 즉시 투쟁하여 없애버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sup>38)</sup> 또한, 지배체제에서 관찰시키고자 하는 미신타파와 관혼상제의 허례허식 금지와 같은 사회주의 생활양식의 실천은 앞서 설명했듯이, 조선민족제일주의라는 북한의 사상적·문화적 이데올로기와 깊은 친연성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 『천리마』의 기사들을 살펴보면, 조선인들의 미풍양속을 사료적 실증을 통해 증명하며 관혼상제의 간소화가 인민의 전통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주로 전문 학자들이 필자로 등장해서 ‘고상한 생일, 혼례레법’을 설명하기 위해 고구려 시대 기록을 가져와 매우 간단한 예식이 전통이라고 강조하고, 허례허식 없는 소박한 미풍양속을 강조하고 있다.<sup>39)</sup> 관혼상제의 허례허식을 조선시대 유교 사상과 도덕, 종교미신의 답습으로 ‘그 속에는 락후하고 미신적인 형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조상숭배 역시 신앙생활화하여

---

37) 유튜브, “북한판 만담 미신을 맞지 말자” 참고.

38) 김형국, “미신의 반동적 본질과 그 해독성,” 『철학연구』, 95호(2003), 46~48쪽.

39) 정성철, “관혼상제에서의 고상한 생일, 혼인레법,” 『천리마』, 575호(2007), 95쪽.

조상을 신적인 존재로 대하는 관념이 생겨남으로써, ‘환상적이며 관념론적이고 미신적이며 허식적인’ 격식들이 생겨났다고 보고 있다.<sup>40)</sup>

그러나 주민의 비공식적 영역에서 경험되는 생활세계는 공식적인 금지의 통제를 거의 벗어나는 사례가 많다. 최근 탈북한 20대 젊은 세대가 경험한 미신문화 역시 단오 때 묘 이장을 하거나 집안의 운수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정도는 집안 내 어른들을 통해 예의범절로 전승되고 있으며,<sup>41)</sup> 점을 보는 문화 역시 많이 보는가 적게 보는가의 차이이지 다들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미신 관련 책은 없지만 다들 수첩에 미신 관련 내용을 적고 다니는 게 많다고 설명하고 있다.<sup>42)</sup> 이와 같이 집안 내 전승되는 생활관습이 학교나 사회, 당의 지침과 괴리되는 현상을 무신론과 유신론의 이분법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그리고 유신론은 생활총화를 통해 압박받아 무신론을 강요받는 형국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에는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행위들이 끊임없이 전개되고 실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사는 꼭 참가를 해야, 죽은 사망한 분들이 잘 도와준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주입을 시켜서, 저는 제사를 잘 참여했죠. 어릴 때는 미지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많으니까 그런데 학교에서는 무신론을 집에서는 유신론을 배워주고...(양강도 출신 D 씨, 1986년생, 남).

사회주의 생활양식이라고 해서 이게 봉건적인 것으로 원래 법적으로 금

---

40) 조대일·장명신, 『조선의 관혼상제』(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4), 5쪽, 191~192쪽.

41) 유튜브, 배나TV “모르는 영아들 23화: 북한이야기, 북한 우상화 교육, 신이 보낸 사람, 지하교회, 탈북자, 종교, 미신, 점” 참고.

42) 유튜브 NKTV, “주체사상은 지고, 미신은 뜨고: 자유통일문화연대 도명학 대표와 대담” 참고.

지되지 않았지만 학습이라든가, 생활총화 강연 이런 압박이 들어와요. 미신을 타파해라, 제사는 조금만 지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간 사람들 추모해서 뜻과 마음을 합해서 당에 충성하면 되는데 굳이 모여서 음식 차려 놓고 가족주의를 한다고 하고...(자강도 출신 E 씨, 1982년생, 여)

우리는 북한에는 사회주의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내면에는 엄청 이렇게, 북한에는 미신행위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아주 뚝뚝 묻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더 사람들이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함경남도 출신 B 씨, 1969년생, 여).

탈북자의 구술에 의하면, 사회주의를 하면서도 내면에 ‘뚝뚝 묻혀 있는’ 미신문화는 북한 주민들이 사회변화에 대응해 나가는 생존의 전략일 뿐만 아니라 세대 간 전승되어 온 문화적 대응으로서의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문화적 관습은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대한 압박 속에서 이중적인 공존을 하고 있다. 마치 무신론과 유신론이 혼성화되거나 공식과 비공식의 뒤섞인 생활 세계를 살아가며 각자 삶의 전략으로 더 나은 대응들을 찾아가는 과정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미신문화의 일상화는 부분적인 시장체제로의 진입과 맞물리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되어 갔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문화적 대응체계로서 과거 민간신앙의 부상과 기복신앙화되는 조상의례는 현대 북한사회에서 도전받고 있는 사회주의 생활양식의 변형과 전환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전환의 동력은 사회변화와 함께 인간집단에 의한 문화의 전승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전승은 세대 간에 안정적이고 균질적으로 전승되기보다는 매우 제한적이고 통제된 환경 속에서 전승되어 그 실체를 파악하기 힘들 것이다. 민간신앙 역시 당국의 처벌

에서 보호될 수 있는 폐쇄적인 공동체 속에서 공유됨으로써 다양한 형식으로 변주되어 왔다고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은 이러한 민간신앙의 전승과 변형을 거쳐 조상의례에 대한 당국의 허용 기준을 넘나들면서 현실에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을 것이다. 특히 장마당 체제에서 기복신앙은 기성 종교 사제가 주민들과 교감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점쟁이, 무속인과 같은 직업군을 만들어 냄으로써 이들 집단의 양적 성장을 증가시켜 왔다. 실제로 북한에서 종교시설에 합법적으로 가 본 경험에 대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1% 미만이 그쳤으며, 그중에서도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방문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sup>43)</sup> 따라서 점복과 주술을 주업으로 하는 무속인들의 신앙적 행위 그리고 기복 추구의 욕구에 맞는 대응들은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의 위치를 만들어 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 무속인들과 기복적 신앙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의 조우가 활성화되고 있는 현상은 장마당 체제 속에서 적극적인 행위자로서 변모해 가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문화의 일면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 후반 이래 등장한 사회주의 생활체계는 세대를 거듭해 가면서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내면화되어 갔을 것으로 보이지만, 고난의 행군과 장마당 체제로의 변화 과정에서 점점 더 순응과 저항의 복잡한 방정식을 만들어 갔다고 할 수 있다. 법적인 처벌과 사회적 지위의 박탈, 개인 신체의 구속 등이 포함되는 억압에도 불구하고 기복적 삶의 추구하고 연결된 소위 미신생활은 북한 판 자본주의 질서의 불안한 현실에서 더욱 활성화되어 갔던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기존 민간신앙의 사회주의 생활체계

---

43) 북한인권정보센터, 『2017 북한 종교자유 백서』, 154~155쪽.

속에서의 변형과 그 변형의 과정에 무속 행위자들(shamanic agent group)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과정에서 한 개인이 무속인이 되는 과정은 그들이 속한 지역 공동체에서 영적인 지식과 능력이 전 세대로부터 전승된 문화의 일부라는 것을 수용해 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강고한 사회주의 생활 체계의 통제 속에서 무속인이 되는 당사자 역시 자신의 병리적 경험과 영적 능력의 획득 과정을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극복해 나가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북한 장마당 체제가 ‘아래로부터의’ 시장화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sup>44)</sup> 그러한 아래로부터의 시장참여의 중심에 여성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남성이 아닌 여성의 시장 활동이 ‘당연하다’는 젠더화된 규범<sup>45)</sup>은 남성에 비해 민간신앙에 훨씬 노출되어 있는 혹은 전통사회에서 형성되었던 문화적 관습들이 여성들에 의해 전승되어 왔던 현상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신타파나 관혼상제의 허례의식 금지 등의 운동이 『조선여성』과 같은 여성 관련 잡지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동시에 무속인의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은 이 직업이 상당한 돈을 벌 수 있는 일로 변모해 가는 사회현상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가는 시장참여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을 두고 북한 주민들이 ‘사회불안 속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장치’로 민간신앙을 이용했다는 분석이나<sup>46)</sup> 북한

---

44) 헤이즐 스미스(Hazel Smith), 『장마당과 선군정치』, 김재오 옮김(서울: 창비, 2017), 22~23쪽.

45) 헤이즐 스미스(Hazel Smith), 위의 책, 239쪽

46) 임순연, “1990년 이후 북한 사회의 민간신앙 연구,” 43쪽.

주민의 일상생활 세계를 구조가 재생산되는 미시적 생활과 구조를 변화시키는 행위의 가능성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포착하고 있는 연구 관점<sup>47)</sup> 역시, 매우 좁은 자율성 속에서도 자신들의 삶을 만들어 가는 북한 주민의 생활문화의 일면을 이해하는 공통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북한사회의 미신문화 현상은 시장체제로의 전환과 같은 경제활동과 관련된 것에서 잘 드러나고 있지만 보다 폭넓게는 출생과 결혼, 죽음과 조상의례와 같은 삶의 순환과 전통명절과 세시의례 등 주기적인 시간을 따라서 일상생활과 조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미신문화가 일상생활에서 표출되는 과정은 체제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적 요구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1986년 이후 본격화된 전통명절의 부활은 기존에 없었던 정월대보름이나 단오, 한식 등의 명절 쇠기 문화를 창출해 냈으며, 그 과정에서 조상의례와 점 보기 등이 확산되어 갔다. 가령, 한탈복지는 정월대보름날 액운을 막는 주술을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했었는데 그 이전에는 정월대보름을 기억하지도 못했다고 한다. 이는 북한 정권의 의도가 그대로 관철되는 영역 너머에서 개개의 주민들 스스로 그들의 생활을 영위해 가는 행위자로서 과거 문화적 관습을 자신들의 삶의 질서에 유리한 방식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고난의 행군과 장마당 체제의 연이은 등장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사회 안전망의 부재를 대체하기 위한 미신문화를 활성화시키는 환경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장마당 경제 자체가 합법과 비합법 사이를 오고가는 경제활동이라는

---

47) 홍민·박순성, 『북한의 권력과 일상생활』(서울: 한울, 2013), 27~29쪽.

점과 그로 인해 고조된 불확실성은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미신을 일상으로 불러들이는 행위들을 증가시켰을 것이다.

#### 4. 결론

지금까지 북한 주민들에 의해 전방위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는 ‘미신문화’의 소비를 체제변화와 함께 전통적인 문화적 관습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중심으로 논의해 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전승문화가 지배권력과 관계를 어떻게 조절해 가면서 변형되었으며, 인민들의 일상생활과 어떻게 균형을 맞춰가면서 ‘아래로부터’의 자본주의 질서와 공존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이러한 미신의 문화사가 북한사회 속에서 조상숭배와 관혼상제, 그리고 일생의례와 같은 과거 세대에서 전승된 생활문화와 깊이 연관되어 왔음을 설명하고자 했다. 동시에, 20세기 후반 사회주의 생활양식이라는 강력한 규범 속에서도 일상에서 은폐되거나 변형된 형식을 통해 지속되어 왔음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문화적 실천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쳐 ‘아래로부터’의 시장화 현상에 민첩하게 대처하는 여성들의 시장진출 또한 중요한 요소였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연구자 이러한 문화적 현상은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가 인간 생활세계의 기복적 요구들과 상호작용 하면서 만들어 낸 현상일 뿐만 아니라, 일상의 고난과 내면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자연스러운 문화적 대응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북한 당국과 지도이념은 여전히 일상의 통제와 처벌의 공포를 통해 미신타파를 공고히 하고 있지만 장마당 체제 이후 더

육 광범위하게 사회 전반에 확산된 기복신앙의 소비는 북한 주민들에게는 안정적인 생존과 내면의 불안에 대한 대응기체로서 의미화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이 문제는 근대적 계몽으로 완전히 포섭되지 않는 인간성에 대한 질문이기도 할 것이다. 정권 창출부터 지속되어 온 사회주의적 근대화는 비합리성으로 표상되는 미신의 소멸을 추구해 왔지만, 합리적인 동시에 비합리적 존재로서 인간은 문화적 관습을 통해 삶의 문제에 대응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 사회 역시 자본주의의 성장과 함께 대도시를 배경으로 무속인들의 수가 증가했던 현상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간의 문화적 대응으로서 미신문화의 지속을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여전히 그들의 생활문화가 사회주의 생활체계 속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왔으며, 그것의 지역·계층적 차이 그리고 문화적 배치의 세부들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자세히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이번 연구는 북한의 문헌과 기존 연구자료, 탈북자들의 구술을 통합적으로 재구성하고 그들의 관혼상제나 명절문화, 조상의례를 포함시켜 현대 북한 주민들의 미신문화를 분석했다는 의의가 있을 것이다. 향후 미신과 직접 관련된 탈북자들에 대한 다양한 심층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진전된 내용과 이론적 분석을 시도할 수 있는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나아가 북한 경제가 성장하거나 사회안정망이 강화되어 간다면 현재의 미신에 의존적인 문화의 향방이 어떻게 전개될지 또한 의문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에 대한 관심을 북한체제를 이해하기 위한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자체로 보다 확장시켜야 할 것이다.

■ 접수: 2월 25일 / 수정: 4월 8일 / 채택: 4월 10일

## 참고문헌

### 1. 북한 자료

#### 1) 단행본

조대일·장명신, 『조선의 관혼상제』(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4).

#### 2) 논문

김형국, “미신의 반동적 본질과 그 해독성,” 『철학연구』, 95호(2003), 46~48쪽.

#### 3) 신문

정혜순, “관혼상제를 간소하게 하자,” 『조선녀성』, 2012년 9월호, 53쪽.

정성철, “관혼상제에서의 고상한 생일, 혼인레법,” 『천리마』, 575호(2007), 95쪽.

“관혼상제에서 허례허식을 없애라,” 『조선녀성』, 2005년 7월호, 49쪽.

“낡은 유습을 버리자,” 『조선녀성』, 1957년 4월호, 24쪽.

“미신은 왜 믿게 되는가,” 『조선녀성』, 1957년 7월호, 36~37쪽.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관혼상제를 간소하게 하자,” 『조선녀성』, 2007년 4월호, 54쪽.

“팔자는 타고난 것인가” 『조선녀성』, 1957년 6월호, 36~37쪽.

### 2. 국내 자료

#### 1) 단행본

강정원, “사하인의 민족정체성과 러시아 민족정책,” 『종족과 민족』(서울: 아카넷, 2005).

동국대학교 분단/탈분단연구센터, 『분단의 행위자: 네트워크와 수행성』(서울: 한울, 2015).

류성민, 『북한 주민의 종교생활』(서울: 공보처, 1994).  
북한인권정보센터, 『2017 북한 종교자유 백서』(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2017).  
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 『현대조선말사전』(서울: 도서출판 백의, 1988).  
스미스, 헤이즐(Hazel Smith), 『장마당과 선군정치』, 김재오 옮김(서울: 창비, 2017).  
홍민·박순성, 『북한의 권력과 일상생활』(서울: 한울, 2013).

## 2) 논문

김성경, “북한 정치체제와 마음의 습속,” 『현대북한연구』, 21권 2호(2018), 191~231쪽.  
박소영, “북한의 지방문화의 획일화와 지방공동체의 해체,” 『북한학연구』, 6권 2호(2010), 121~145쪽.  
임순연, “1990년 이후 북한 사회의 민간신앙 연구”(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차성근, “북한 체제변동 가능성과 북한주민 의식구조 분석”(경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4).  
최준, “북녘의 무당들: 어느 탈북 무녀의 이야기,” 『한국문화연구』, 21호(2011), 171~199쪽.

## 3) 신문

이동휘, “북, 10대 청소년 점쟁이 강력 단속나서,” 『조선일보』, 2015년 5월 9일.  
이은영, “탈북 역술인이 들려주는 북한의 점 보기 실태,” 『신동아』, 570호(2007), 282쪽.  
홍국기, “북한서 미신 만연...돈 조각상, 신수풀이 사진 나돌아,” 『연합뉴스』, 2016년 10월 30일.  
“관상, 손금 등 미신 급속 확산,” 『경향신문』, 1991년 7월 15일.  
“북 고위층 부인들이 몰려가는 평양 최고의 명당은?” 『엔케이 조선』, 2013년 10월 28일.  
“北, 점보는 사람 늘고 있다,” 『데일리 NK』, 2005년 4월 17일.

“北돈주, 동업자 띠·나이 파악해 ‘장사궁합’ 본다는데,” 『데일리 NK』, 2015년 6월 19일.

“北부유층, 조상묘 찾아 555원 파묻어,” 『데일리 NK』, 2008년 9월 12일.

“생계난에 불안감 확산… 점(占)보는 北주민 늘었다,” 『데일리 NK』, 2018년 3월 26일.

#### 4) 기타 자료

유튜브, “북한판 만담 미신을 맞지 말자” 편.

\_\_\_\_\_, “친기누설, 북한의 무속신앙 백화신당” 편.

\_\_\_\_\_, CBS, “새롭게 하소서: 나는 북한 무당이였다” 편.

\_\_\_\_\_, NKTV, “주체사상은 지고, 미신은 뜨고: 자유통일문화연대 도명학 대표와 대담” 편.

\_\_\_\_\_, 배나TV “모르는 영아들 23회: 북한이야기, 북한 우상화 교육, 신이 보낸 사람, 지하교회, 탈북자, 종교, 미신, 점” 편.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 <http://www.unilaw.go.kr>

통일부(북한정보포털), “주간북한동향” 제348호(1997 9월 16일), 조선중앙방송 9월 16일 추석 소개.

### 3. 국외 자료

#### 1) 단행본

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THANK YOU FATHER KIM IL SUNG: EYEWITNESS ACCOUNTS OF SEVERE VIOLATIONS OF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IN NORTH KOREA*, 2005.

#### 2) 논문

Balzer, Marjorie Mandelstam, and Uliana Alekseevna Vinokurova. “Nationalism, Interethnic Relations and Federalism: The Case of the Sakha Republic

(Yakutia),” *Europe-Asia Studies*, vol. 48, no.1(1996), pp.101~120.

Humphrey, Caroline, “Shamans in the City,” *Anthropology Today*, Vol.15, No.3(1999), pp.3~10.

Manduhai Buyandelgeriyn, “Dealing with Uncertainty: Shamans, Marginal Capitalism, and the Remaking of History in Postsocialist Mongolia,” *American Ethnologist*, Vol.34, No.1(2007), pp.127~147.

## Internalization of Socialist Lifestyle and Cultural Habits: Focusing on the Change and spreading of the ‘Superstition Culture’ in North Korean

Kwon, Hyeokhui (University of Seoul Museum)

Recently, it is easy to hear about the prevalence of superstition culture among North Koreans through the oral story of defectors and the press. However, the spread of superstition culture can be said to be a part of the life culture that has been handed down from the time before that the culture of the jangmadang system has been newly created. The strong norm of socialist lifestyle has attempted to extinguish past cultural practices such as superstition culture into an ideological order, but it can be said that it has continued through concealed forms and diverse cultural transformations in everyday life realm. In particular, it contains implications of the cultural response to solve the hardships of reality of North Koreans that facing the marketization of ‘from below’ and inner problems such as anxiety in

the mind.

Keywords: cultural customs, socialist lifestyle, jangmadang system,  
marketization from below, superstition culture, ancestor rites